



2025 마이컬렉션 개최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전갤러리에서 '2025 마이컬렉션'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마이컬렉션은 본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며,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하는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소장품전으로 동문들이 오랜 시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공개하고, 그 중 관리나 보관이 어려운 작품들은 새로운 소장자를 찾아 주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관람객들은 전시를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개인소장 작품들을 감상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소장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현대미술 작품외에도 조선 말 화단에서 명성을 떨쳤던 혜산 유숙의 아름다운 꽃그림을 비롯해 조선시대 도공들의 정교한 손길이 담긴 청화백자 등과 유럽 궁중에서 썼던 거울 등도 출품되었다. 또한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거장 이중섭의



판화 작품과 정상화 동문의 드로잉 등이 출품되었는데, 이중섭 판화는 홍보물이 나가는 즉시 사전판매가 되었으며 이후에도 많은 분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져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또한 1980년대 파리시절 제작된 방혜자(56회화) 동문의 유화(◀사진) 및 판화 작품을 비롯해 유인수(66회화), 이광택(80회화) 등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인기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였다. 이와 더불어 박혜령(74회화), 박덕실(81회화) 동문의 유화, 변영혜(78회화), 선우향(91서양) 동문의 독창적인 프레스코그라피 등 다양한 장르와 시대를 아우르

는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총 17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다.

마이컬렉션은 기존의 전시와는 차별화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 작품의 창작자보다는 소장자의 시선과 경험을 중심에 두는 기획 전시로서, 그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개인소장 미술작품들을 한데 모아 예술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다. 예술을 단순히 '창작'과 '감상'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소장'이라는 행위를 통해 예술의 의미를 다시 사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작품에 담긴 소장자들의 개인적 서사에 있다. 소장자가 처음 작품과 마주했던 순간의 직감, 그 작품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배경,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소중한 기억들이 작품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스며있다. 이러한 사적인 이야기들이 전시장이라는 공적인 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관람객들과 진솔하게 공유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나아가 이번 전시는 '예술을 소장한다'는 행위가 결코 거창하고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삶과 감각, 취향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일상적인 문화 행위임을 관람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 기간 중 이루어진 작품 판매를 통해서도 작품이 다음 소장자에게로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건전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작가, 작품, 컬렉터, 관람자라는 네 가지 주체가 형성하는 복합적인 관계망 안에서 예술의 순환 방식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그동안 감춰져 있던 개인 컬렉션의 은밀한 세계를 적극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대중과 예술 사이에 보다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본회는 이번 마이컬렉션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획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이를 통해 서울대 동문들 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미술계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회장동정



2025 여성건축가기획전 개막식 참석

본회 권영걸(국가건축정책위원장/ 69응미) 회장은 지난 5월 20일 '2025 여성건축가 기획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여성건축가가 바라보는 미래 건축 및 도시공학 트렌드를 소개하는 '2025 여성건축가 기획전'은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에서 막을 올렸다.

여름특강 미술실기강좌

본회 S-미술아카데미는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8주에 걸쳐 여름특강 미술실기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본회 산하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고 서울대총동창회가 후원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프리페인팅'(강사 조명식), '기초소묘드로잉'(강사 김호준), '태블릿PC 디지털페인팅-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강사 이영훈), '여백과 묵향의 힐링-사군자'(강사 변영혜), '수채화'(강사 박혜령), '민화와 궁중화'(강사 김종선), '현대수묵화'(강사 조래원), '현대미술작가 톺아보기'(강사 이영훈), '초·중등 영재미술'(강사 박진하), '프레스코 원데이클래스'(강사 선우향) 등 10개 강좌로 구성된다. 모든 강좌는 오랜 시간 실전 경험과 교육경력을 쌓아온 모교 출신 강사들이 수강생의 수준과 필요에 맞춰 개별지도한다. 이번 여름특강에 신설된 강의는 총 3개로 '민화와 궁중화-복을 부르는 그림'(강사 김종선), '현대수묵화'(강사 조래원), '초·중등 영재미술'(강사 박진하) 등 각각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선(74회화) 강사의 '민화와 궁중화'는 '복을 부르는 그림'이라는 부제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다. 한국 미술사상 가장 융성했던 조선왕조 시기의 도화원에서 제작된 궁중귀족화와 일반 서민들의 민화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목표다. 조래원(75회화) 강사가 담당하는 '현대수묵화'는 관념화된 동양화의 틀에서 벗어나 현대적으로 수묵화를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풍경, 인물, 정물, 문인화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며, 각자의 취향에 따른 개별적 지도를 통해 개성 있는 작품 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진하(00동양) 강사의 '초·중등 영재미술'은 예술적 소양을 기르고자 하는 청

소년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미술학원이나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심화된 미술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의 실력에 맞춘 개별 실기수업과 이론수업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미술 전반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좌안내: 서울대미대동창회 홈페이지: <https://www.snuarta.or.kr/>
수강문의: 02-877-8065(평일10~17시) 문자신청: 010-8605-8065



백제미술여행

백제의 숨결을 따라-부여공주 1박2일
2025.6.26(목)-27(금)

미술여행 참가신청 안내

[여행일정] 충청남도 공주·부여 일대
-1일차: 마곡사,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 공산성 등
-2일차: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 공남지, 낙화암(백마강유람선) 등
[세부사항] 전세버스이동/ 숙박: 호텔(기본 2인1실/ 5만원 추가시 1인실)
-맛집투어: 산채정식/ 한우전골과 알밤술밥/ 연잎밥정식 등
[특별행사] 여행후 전시개최(2025.12.2-13 갤러리Pal)
[신청인원] 잔여 5명/ 동문 및 가족친지/ 단 올해 연회비 납부자 우선
[참가신청] 6월20일(금)까지 문자신청(010-5235-1946)/ 성함학번학과기재
[참가비용] 25만원(전시비포함)/ 1945년생 이전, 1995년생 이후 20만원
-계좌: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신청시 입금
[문의] 전화: 02-555-1946(평일 오전10시-오후5시) 문자: 010-5235-1946



S-미술아카데미

여름특강 수강생모집

2025 여름특강 미술실기강좌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원데이	
오전	기초소묘드로잉 어반드로잉·인물창작	현대미술작가 톺아보기 유명작가작품 심층분석	자유크로키 누드	현대수묵화 풍경·인물·정물 문인화 외	태블릿PC 디지털페인팅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프레스코 원데이클래스 Fresco·Secco (석회벽화·템페라)
	김호준	이영훈	강사없음	조래원	이영훈	
오후	민화와 궁중화 이론+실기 복을 부르는 그림	초·중등 영재미술 창의미술	프리페인팅 자유창작 유화·아크릴화	여백과 묵향의 힐링 사군자	수채화 초·중·고급	7월 12일 (토) 10-17시 (점심휴식 1시간)
	김종선	박진하	조명식	변영혜	박혜령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에스아트플랫폼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접수기간

6/2~6/20

접수방법

문자접수(010-8605-8065) 및 수강료 입금
납부계좌: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수강기간

7/4(금)~8/29(금) 8주 / 공휴일 휴강(보강 진행)
오전반: 10~13시 / 오후반: 14~17시
*초·중등 영재미술 7/22~8/12(4주)

강의장소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종로구 인사동9길16 백악미술관2층)

수강정원

강좌별 15명(신청순 접수, 복수신청 가능, 10명미만 폐강)

수강료

강좌별 24만원(8주 기준)
*자유크로키 16만원(8주 기준), 모델료 별도
*프레스코 원데이클래스 15만원(재료비 포함)
*초·중등 영재미술 12만원(4주 기준)
*환불규정 홈페이지 참조

강사진 및 아카데미 안내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S-미술아카데미)

문의

02-877-8065(평일 10시~17시)

모교소식



원로교수 초청 간담회 개최

모교(학장 정의철)는 지난 5월 13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4회의실에서 2025년도 원로교수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종합화 50주년을 맞이하여 모교에서 오랜시간 가르침을 주신 후 퇴직하신 원로교수들을 초청하여 미술대학의 역할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정의철(88산디) 학장을 비롯해 최인수(66조소), 권영걸(69응미), 이순중(70응미), 이용덕(77조소), 심철웅(78회화) 등 원로교수 5분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임용된 강호연, 최영빈 교수와, 2025년도 신규 임용 배재혁 교수가 함께 참석하여 모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임교수와 원로교수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전국국립대 예술대학장협의회 참석

모교 정의철(88산디) 학장과 박제성(98산디) 부학장은 지난 5월 29일 12시 부산대학교 박물관 가온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상반기 전국국립대학교 예술대학장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예술대학 학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학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예술대학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당면한 예술대학 공동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논의했다.

후기졸업전 및 석박사 학위청구전

모교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전 및 석박사 학위청구전이 지난 6월 5일부터 29일까지 74동 우석갤러리와 101호 영상제작스튜디오에서 개최된다. 6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양화과,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동양화과의 전시가 열리며, 디자인과 및 영상매체예술은 오는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조소과 및 공예과는 오는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양화과 작가특강

모교 서양화과가 주최한 작가 특강이 지난 5월 27일 화요일 오후 6시 74동 201호 오디오리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특강에는 인물형상을 통해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해온 이겨레 작가가 강사로 나섰다. 이겨레 작가는 사람을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 한 상황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포착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캔버스의 넓이, 밑칠의 순서, 배치 방식 등을 이미지와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주제를 강화하는 매체로 활용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에는 사회적·역사적 공간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삼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새롭게 인식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며 작업하고 있다. 모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를 초청하여 학생들의 작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디자인학부 배재혁교수 신규임용



2025년도 배재혁 교수가 첨단기술융합디자인으로 신규 임용되었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에서 학사를 마치고 동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뉴미디어랩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UCLA에서 Design Media Arts 전공으로 MFA를 받은 후 국내에서 teamVOID 미디어 아트 그룹으로 활동했다. 2017년에 콘텐츠 제작회사인 (유)매드제너레이터 창립 후 삼성, SK, 두산, 젠틀몬스터 등의 회사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대전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의 국내 전시회 다수 초대되었으며, 2020년, 2021년, 2022년 개인전을 진행했다.

동양화과 특강



서울대학교 BK21 사회적 감수성을 실현하는 디자인 리더 양성 사업단과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현대미술의 현장' 특강이 지난 5월 21일 오후 4시 예술복합교육연구동 74동 오디오리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특강에는 미술잡지 아트인컬처 김복기 대표가 강사로 나서 현대미술의 현장 이야기를 전했다. 김대표는 30여 년간 미술 저널리즘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미술계의 동향과 과제,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 견해를 제시했다. 이번 특강은 미술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는 기회로 평가되며, 참석한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현대미술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디자인과 특강

지난 6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스튜디오 스페스(Spass)의 공동창립자 야론 코르비누스(Jaron Korvinus)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로테르담에 기반을 둔 디자인 스튜디오 스페스는 사려 깊으며 지적인 접근 방식과 유쾌한 감성을 결합한다. 브랜딩/아이덴티티와 실험적인 타이포그래피부터 공공장소를 위한 대규모 공간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연 <Play for the People> 자신들의 작업 방식과 도시가 디자이너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울러 그래픽디자인이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방식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과정, 그리고 디자인과 관람자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미대인의 밤



모교 제40대 학생회 '노트'가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2025 미대인의 밤: SNU ART OLYMPIC'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모교 내 다양한 학과 학생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모교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평소 각자의 전공 분야에 집중하느라 다른 학과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적었던 미대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공예과, 디자인학부 등 각기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참가해 학과 간 벽을 허물고 자연스러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백전 형식의 소규모 체육대회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준비되었다. 행사 후에는 각 팀별로 뒷풀이가 진행되어 학생회의 지원하에 하루 종일 함께 활동한 팀원들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대 내 다양한 학과 학생들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대소식



제2회 'On the Lounge: 총장과의 대화'

서울대학교는(총장 유홍림)는 지난 5월 29일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2025년 제2회 'On the Lounge: 총장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 교육의 비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려 유홍림 총장, 노유선(생명과학부) 학부대학장, 나종연(소비자학과) 학생처장 등이 참석했다. 유홍림 총장은 "교육은 서울대의 존재 이유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정해진 답은 없기에 이번 논의를 통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행사를 시작하며 나종연 학생처장은 지난 4월 진행된 2025년 제1회 총장과의 대화에서 논의된 안건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이후 서울대의 교육이 어떻게 현실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유홍림 총장은 "연구에서 창업까지 이어지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것이 학부대학"이라 답했다. 이 밖에도 서울대 교육의 강점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유홍림 총장은 "서울대는 대한민국의 대학 생태계와 연구 생태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나 대학연대 지역인재양성 사업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서울대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을 묻자 유홍림 총장은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능동적으로 배움을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이번 총장과의 대화의 안건과 추후 경과를 마이스누 포털 공지를 통해 전해질 예정이다.

67억기부에 감사패 전달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지난 4월 30일 관악캠퍼스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약 67억원을 쾌척한 송원김영환장학재단 김해련 이사장(태경그룹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총장을 비롯해 주요 교내 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이사장의 지속적인 기부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하고, 故 김영환 회장의 숭고한 뜻을 함께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해련 이사장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에 총 67억 2,040만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서울대는 김해련 이사장과 송원김영환장학재단의 지속적인 지원과 나눔 정신을 소중히 이어받아, 앞으로도 인재 육성과 사회 공헌이라는 대학의 사명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봄축제 'SNUFESTIVAL: Spring-kle'

서울대 봄축제 'SNUFESTIVAL: Spring-kle'이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렸다. '봄이라는 케이크를 완성하는 마지막 장식'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첫날에는 '사운드 오브 뮤직' 메인 공연과 학생들의 자율 버스킹 무대 '버스커리'가 잔디광장에서 열려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예술 부스, 미니게임 부스 등도 마련되어 학생들의 참여 열기를 더했다. 둘째 날에는 인기 드라마에서 모티브를 얻은 서바이벌 게임 '오징어땅콩게임'이 큰 호응을 얻었고, 야외 캠핑 프로그램 '왓이즈캠핑?'에서는 텐트를 설치하고 공연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마스코트 '리오'는 학생들과 사진을 찍으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었다. 캠프파이어 플레이리스트에서는 어



쿠스틱재즈 공연과 사연 이벤트가 열려 관람객과 따뜻한 교감을 나눴다. 폐막제에는 Billie, LUCY, 다이ना믹 듀오가 무대에 올라 축제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현장에서는 푸드트럭, 굿즈 판매, 지역 상권 연계 이벤트, 다회용기 사용 장려 등 환경을 고려한 운영도 눈에 띄었고, SNS 이벤트와 협업 플랫폼을 통해 참여도를 높였다. 이번 축제는 기획부터 운영, 무대까지 모두 학생들이 참여해 참여자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공동체적 축제로 마무리되었다.

서울대시흥캠퍼스, 지역상생 협약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시흥시, 시흥시의회, 서울대는 지난 4월 25일 시흥시청에서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민 이용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7월부터 3년간 야외 체육 시설 할인, 교육 행사 유치, 생활관 활용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이 추진된다. 시민들은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컨벤션센터에서는 주요 교육 행사와 박람회가 열린다. 연수원 일부는 신규 임용 공무원의 생활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대-민음사 라이터스쿨 3기 모집



서울대학교-민음사 라이터스쿨 3기를 모집한다. 민음사와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에서 출발한 라이터스쿨은 소설을 쓰고자 하는 예비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설된 창작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오는 6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숍은 10주 동안 단편소설 혹은 중편소설 한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각 작품은 합평을 통해 리더 작가(편혜영)와 동료 수강생의 피드백을 받는다. 리더 작가, 동료와의 워크숍 외에도 수강생은 현직 출판 편집자와 교류할 수 있다. 더불어 원고 작업에 필요한 서울대학교의 자료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커리큘럼이 마무리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업에서 완성된 소설은 민음사 문학팀의 검토와 수강생의 동의를 거쳐 문예지 <릿터>에 게재될 수도 있다.

문화예술원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30회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2025)이 진행됐다. ISEA2025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창작자가 참여하는 문화, 예술, 과학, 기술 융합 심포지엄으로, 디지털 아트 전반에 관한 다학제적 교류의 장이자, 양질의 담론을 형성하는 페스티벌이다.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ISEA2025의 프로그램 '스페셜 트랙'이 서울대미술관 오디토리엄과 랙터홀에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뉴미디어 예술작품의 보존에 대한 논의부터 기술을 매개로 한 예술 교육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폭넓게 탐구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Good Morning Mr. Orwell Ver.2》 전시가 서울대학교미술관(관장 심상용)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는 기술이 새로운 미래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평안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비전 하에, 예술가들의 창의적 상상력을 통해 기술과 함께하는 따뜻한 미래를 모색했다. 참여 작가들은 '포스트 휴먼', '인공지능', '미래 도시', '인류세', '매체감각' 등의 주제로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총동창회소식



단과대학(원) . 특별과정 동창회장 간담회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66사회사업)는 지난 4월 25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총장 공관에서 각 단과대학(원)특별과정 직능지부동창회 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취임 이후 매년 총장공관에서 동창회장단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김종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발전과 동창회 결속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회장을 비롯해, 유홍림(80정치) 서울대 총장, 총동창회 이경형(66사회) 상임부회장과 송우엽(79체육교육) 사무총장, 허영(70간호) 간호대동창회장, 박식순(77농대) 농생대동창회장, 김인규(69정치) 문리대동창회장, 강용현(71법학) 법대·대학원동창회장, 이규석(66지구과학교육) 사대동창회장, 문현경(71식품영양) 생활대동창회장, 임재원(76국악) 음악대학 동창회장, 이웅희(86의학) 의대동창회장 외 대학동창회장 6인과, 특별과정 동창회장 6인이 함께했다.

서울대 나눔가족음악회



총동창회는 지난 5월 13일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2025 서울대학교 나눔 가족음악회’를 개최했다. 지휘는 금난새 동문이 맡았고,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협연을 맡아 무대를 가득 채웠다. 동문과 가족, 재학생, 교직원 등 2000여 명이 객석을 메운 가운데 공연은 수차례 기립박수로 환호에 휩싸였다. 이번 음악회는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통합 이전한 지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았다. 김종섭 회장은 팸플릿 인사말에서 “반세기 전 관악산 자락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동문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서울대학교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자부심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50년을 향한 새로운 약속을 다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축사에서 “서울대 나눔 가족음악회는 학문 축제이자 사회공헌을 위한 귀한 나눔의 자리”라며 “음악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고,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개교 8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4월 장학금기부 7억원

조기호(54화학교육) 동문이 관악회에 5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해 오랜 기간 이어온 모교 사랑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조동문은 지난 2000년 ‘조기호·이영자 특지’를 설립한 이후 꾸준히 서울대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이어왔으며, 이번 기부로 누적 기부액은 10억원을 돌파했다. 기호물산 회장으로 기업을 이끌어온 조동문은 “앞으로도 받은 것을 나누는 일이 삶의 중요한 가치”라고 전했다. 4월 한 달간 총동창회에 전달된 기부금은 총 6억 9287만 5000원이다. 주요 기부 현황으로는 서병륜(69농공) 로지스올 회장이 1억원을 기부해 총 4억2500만원을 누적했고, 하상완(64치의학)·김금자 부부는 5000만원을 기부해 누적 2억원을 달성했다. 김성균(89경영) 참회계법인 대표이사과 김홍진(65농생물) 투엠바이아연구소 대표도 각각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 외에도 총 8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해 후배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사단법인 관악경제인회 발기인 총회



지난 5월 8일 서울 중구에서 서병륜 회장 등 관악경제인회 임원들이 모여 ‘사단법인 관악경제인회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 서병륜 관악경제인회 회장은 향후 회의 활동 방향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서병륜 회장은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

장으로 선출된 이후, 관악경제인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관악경제인회의 주요 사업 방향으로 ‘창업지원’, ‘환경경영’, ‘인재경영’ 3대 분야를 제시했다. 또한 그는 관악경제인회의 법적 지위 전환 계획도 강조했다. 현재는 총동창회 산하 임의 직능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나, 상반기 중 주무 부처의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회장은 조직 정비와 사무국 독립 운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회장은 “회장을 맡은 이상, 재정적 기여를 포함해 숭선수범하여 관악경제인회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대학 동문 경제인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경제인회는 앞으로도 창업과 인재 양성, 환경 경영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간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선도적 경제인 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4.19민주혁명 65주년기념 포럼

지난 4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4.19 민주혁명 65주년을 기념해 포럼이 개최됐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와 한국정치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며 문리대동창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개헌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주제로 열려, 한국 정치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혁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행사는 4.19민주평화상운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었으며, 서울대 유홍림 총장과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축사를 통해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종섭 회장은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논의가 한국 정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4.19 민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깊은 울림을 남겼다.

제21회 서울대학교 동문 바둑대회

- 일 시 : 7월 6일(일) 9:00 ~ 18:00
- 장 소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제3식당 (75-1동)
- 참가자격 : 서울대학교 구성원(동문,재/휴학생, 교직원)
- 진행방법 : 가. 단체전 : 5인 1팀 / 나. 개인전 : 6개 조 편성
- * 개인전은 변형 스위스 리그, 단체전은 승점제 진행.
- * 행사 일정 및 내용, 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참가비 및 신청방법]

- 1. 참가비 : 재학생 참가자 무료, 동문 참가자 (3만원)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37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2. 신청방법 : 2025년 6월 19일(목)까지 참가 신청서 이메일/팩스 (이메일 jang9869@hanmail.net, 팩스번호 02-703-0755)
- * 선착순 마감 300명
- * 총동창회 모든 행사는 평생회비 또는 2025년도 동창회비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 신청 가능
- 회비계좌 : 신한은행 140-001-180304 (예금주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 입금 시 성함과 입학연도 표기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25.5.11-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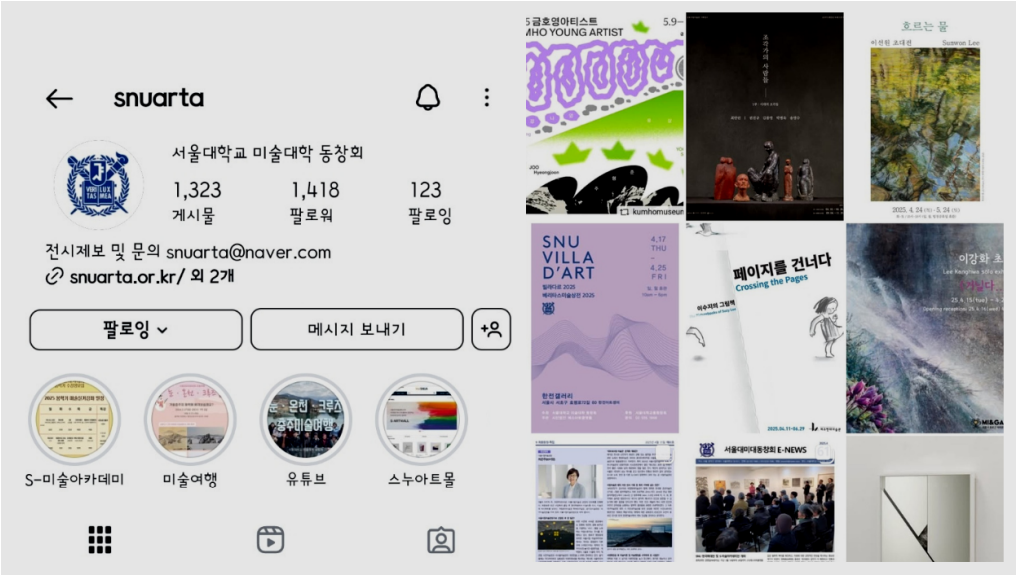
- 부회장회비 변영혜(78회화)
- 이 사 회비 이지희(80회화)
- 일 반 회비 김희자(66회화) 노 준(89조소) 변명희(85동양) 서동희(66응미) 정은미(81회화)
- 후 원 금 류은자(14환경대학원) 10만원
- 광고후원금 김승희(65응미) 20만원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 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소식을 보내주세요~

본회 소식지인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15 발행되어 동문 및 관련 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휴대폰이나 본회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S로 직접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광고후원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말일
- 발 행 일 : 매월 15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서울대미대동창회

전문 액자 서비스

시작 안내

작품 픽업&픽드랍 배송 서비스
50년 이상 경력의 장인의 전문 액자 제작

액자 종류 : 원목, 아크릴, 알루미늄 액자 등 / 캔버스, 판넬 판매
문의 및 주문 : 02-555-1946 / 010-5235-1946

동문탐방

노정민(85산다)

가정의 달을 맞아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노정민 관장을 찾았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의 설립목적은?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는 국내 최초로 '책'을 주제로 한 어린이 미술관이다. 어린이가 처음 만나는 예술작품인 그림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에 공감할 수 있는 전시와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은 김찬중 건축가의 설계로, 2015년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오픈과 함께 총 2700제곱미터의 규모로 개관하였다. 현대백화점그룹의

경영이념은 '고객을 행복하게, 세상을 풍요롭게'이다. 그래서 국내의 어린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들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전문가들이 준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어린이들이 어릴 때 만난 미술관에서의 경험을 기억하고, 예술가가 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예술 경험을 거리낌 없이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갖추도록 돕는다. 매일매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왔는데, 올해 오픈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AI 시대, 어린이에게 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의견은?

아이가 태어나서 첫 단어, 첫 문장을 말하면 어른들이 흥분하고 신기해 한다. 그 이유는 단순히 아이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나며 문장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쓰고, 책을 이해하고 얻어내는 가치가 소중하고 유용하기에, 이를 기대하며 축하하기 때문일 것이다. 온전한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 어린이들이 책에 담긴 글과 그림을 통해 지식을 얻고, 생각의 틀을 만들고, 상상력을 키우고, 예술적인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보와 이미지, 시각자료를 선택해서 가공하는 AI의 편리성을 뛰어넘고 '창조하는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백화점과 연계된 미술관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정부 등록 1종 미술관으로서 매년 10만여 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찾는다.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매년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4곳의 어린이들에게 8회 이상의 미술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구 지역아동센터에 미술관이 개발한 온라인 키트를 보내고 있다. 미술관에 오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배움의 기회에 지역적 차이가 없기를 바랐다. 또한, 특수학교 재학생을 위한 미

술관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왔다. 2023년 통계를 47개국에 정규교과 또는 방과 후 수업으로 한국어반이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문화 예술교육기관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민하며 <MOKA와의 세계여행_서울>이라는 교육 키트를 2023년에 개발하였다. 작년부터 해외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교육 키트를 4천 명 이상에게 무료로 전달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람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의 전시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즐겁다. 특별히 올해 여름에 새롭게 보여질 《봉주르 팝업 2025》 전시를 소개하고 싶다. 《봉주르 팝업》(2017)은 아누크 부아로베르(Anouck Boisrobert), 루이 리고(Louis Rigaud) 작가와 함께 했던 전시다. 2017년, 파리 근교 작업실을 직접 방문하고 그들의 팝업 북 작업에 감동하여 전시를 열었다.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기도 했고, 작품과 전시 공간이 잘 어우러진 성공적인 전시였다. 2025년 MOKA 10주년을 맞아 그들을 다시 초대하면서, 추가로 발간된 '팝업북'을 보여주며, '아트 게임'이라는 영역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 미디어와 게임에 어린이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심미성이 돋보이는 아트 게임을 소개하여 그림책 분야처럼 게임 분야에서도 수준 높은 작품,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창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여정과 관장으로서의 보람은?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전공했는데, 고등학교 시절 <세계는 디자인 혁명 시대>라는 특집 방송을 보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대학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공간디자인 수업이 재미있었고 건축과와 환경대학원에서의 수업으로 조경디자인이나 건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디자인 분야를 보다 이론적으로 알고 싶어서 코넬대학교로 유학, 디자인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아이오와대학에서 미술교육, 교육학, 미술관 관련 수업을 들었고, 아이오와대학미술관, 올란도시립미술관, 다트머스대학 후드미술관, 이 세 곳에서 도슨트 인터뷰를 진행, 미술관 경험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미국 뉴잉글랜드, 플로리다, 아이오와, 일본 동경, 곳곳에서 살아보고 일해 본 경험이 지금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을 운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10년 귀국 이후 무엇보다 당시 서울대학교미술관의 관장이셨던 권영걸 회장님께서 디자인 전문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것이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의 관장직을 10년 이상 맡아 오면서,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중학교 때부터 매주 갤러리를 다니며 전시 평을 쓰는 과제를 했던 것과, 석박사 논문이 전시와 관람객 간의 관계에 대한 것임을 발견하고, '나는 정말 뮤지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기뻐다. 지금도 미술관 공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작품과 공간이 주는 감동은 언제나 최고의 경험이라고 느낀다. 이 감동을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를 찾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동창회에 바라는 바는?

학교를 졸업하고 긴 시간이 지나서야 동창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여러 대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교정 곳곳에 있는 멋진 조각 작품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고, 미국 대학생들에게는 전공을 불문하고 예술이 가깝게 있다고 느꼈다. 우리 미술대학 동창회도 미대 학생들은 물론,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예술의 영향력과 가치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보면 좋겠다.

※ 노정민 동문은 모교 산업디자인과 및 동대학원 졸업 후 코넬대학교에서 석사, 아이오와대학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에서 인문학 강사, 미술 강사로 활동하였다. 2012년부터 2년간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디자인전시를 기획하였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현대어린이책미술관 관장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제44회 현대한국화대작전' 개최 김중선(74회화)

김중선(현대한국화협회 이사장) 동문이 지난 5월 9일부터 18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제44회 현대한국화대작전'을 개최했다. 9일 열린 개막식은 축하공연 등 식전행사 후 김중선 동문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회 권영걸 회장을 비롯해 하철경 전 예총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권영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재학 당시 모교의 학제 덕분에 동양화과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한국화단의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화의 세계화를 위해 현대한국화협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진



회회의 전문위원, (사)현대한국화협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작가상 수여식에서는 김석원 등 청년작가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한편 김동문은 중앙대학교, 전남대학교, 수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분과 회원, 국가원로

Common Ground Research Networks 논문게재 이부연(71응미)

이부연 동문이 지난 5월 21일 미국의 Common Ground Research Networks에서 논문을 게재했다. 이동문은 '세계평화 지속성 유지를 위한 미술교육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점토미술과 미술교육'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해당 논문은 국제 사회미술 연구 학술지 제 17권 2호(Journal Titl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rts in Society, Volume 17, Issue 2)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논문은 점토미술을 통해 인류의 사회적 도전을 다루고 평화 문화를 촉진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또한 평화 문화를 위한 도자기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특히 파트너십, 양성 평등, 불평등 감소, 건강과 웰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 중 하나로 이동문은 2012-17년 점토미술의 세계 소통을 위해 6개의 국제도자기전시회를 개최했으며 2020-24년 점토미술을 통한 글로벌 소통을 위해 5개의 온라인 국제도자기 전시회를 개최했다.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 입학식 김형숙(85서양)

서울대학교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장 김형숙 동문이 지난 5월 9일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 13기 입학식을 진행했다.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은 2013년 3월 19일 당시 모교 이순종 학장과 관악구청 유종필 구청장이 서울대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을 설립, 운영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며 시작됐다.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은 관악구 내의 미술분야 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미술을 중심으로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과 융합된 통합형 창의예술교육을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 미술대학, 사범대학, 미술교육협동과정 대학원생들의 참여로 제



지속가능하게 실천하고 있다. 한편 모교 서양화과 졸업후 동대학원에서 미술이론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동문은 현재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공되는 통합형 미술교육은 지난 2013년 시작돼 2014년 1월 23일 제 1기 수료식과 함께 미술전시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지금까지 총 12기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통합형 미술교육과정을 통해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와 미술대학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수월성 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대학이 공동체에 사회 봉사를

윤생프로젝트8 전시기획 허보윤(86공예)

허보윤 동문이 윤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 성북동 LKATE갤러리에서 열린 '만사평평' 전시를 기획했다. 허동문은 "평평하다는 것은 굴곡이나 단차가 없는 면(面)이 기울어짐 없이 펼쳐진 상태다. 평평한 사물을 만드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사물의 재료는 고요하고 평평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나무는 휘고 금속은 팽창하며 흙은 갈라지고 유리는 미세한 요철을 감춘 채 평평하게 만들려는 인간의 조작을 거부한다. 진정한 평



면을 구현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상이자 관념일 뿐이다. 그렇다면 평평함은 물리적 형태라기보다 하나의 상태, 태도, 존재 방식일지도 모른다. 평평한 사물의 존재 방식은, 안정감 있게 펼쳐져 그 위에 놓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한편 모교 및 동대학원 공예과를 졸업한 허동문은 현재 양구백자연구소 부소장, 모교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2025 문화다양성주간' 참여 김정한(92서양)

김정한 동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에 발표자로 참여했다. 올해 유네스코협약 20주년을 맞아 문화다양성주간 행사는 '다름을 담다, 문화로 잇다'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부산 등 전국 여러지역에서 개최됐다. 서울에서는 5월 23-2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일대에서 문화다양선 큐레이션展과 토크콘서트, 포럼, 작가와의 만남,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김동문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20주년, 디



로 재직중이다.

지털시와 문화다양성' 주제발표를 맡아 다른 발표자들과 함께 '디지털시 전환시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한계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이후 시카고 대학에서 필름,비디오, 뉴미디어를 전공했으며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인지과학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여자대학교 박물관장 및 현대미술전공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모교 서양화과 교수

'2025 금호영아티스트' 참여 주형준(08동양)

주형준 동문이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호미술관에서 열린 2025금호영아티스트 2부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제22회 금호영아티스트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6명의 작가(강나영, 강철규, 송승준, 유상우, 이해반, 주형준) 중 주동문을 포함하여 강나영, 유상우 총 3인의 개인전으로 구성됐다. 전시는 돌봄과 노동을 둘러싼 관계와 사회구조 안에서 물리적·정서적 긴장을 섬세하게 포착한 강나영 작가의 영상 설치 작업, 현대 사회가 상실한 감각을 조명하며 감각의 회복 가능성을 모색한 유상우



작가의 설치 작업, 그리고 소원이라는 인간 보편의 욕망을 동시대적인 시선으로 탐구한 주형준 작가의 회화 작업을 선보였다. 한편 주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졸업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5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중이다.

작가의 설치 작업, 그리고 소원이라는 인간 보편의 욕망을 동시대적인 시선으로 탐구한 주형준 작가의 회화 작업을 선보였다. 한편 주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졸업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5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중이다.

MICRO-COSMOS 신한철(67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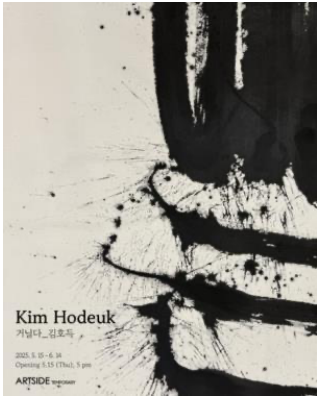
신한철 동문의 개인전 'MICRO-COSMOS'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아트파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2010년 아트파크가 기획한 '形의 色다른 思惟' 이후 약 14년 만에 다시 열린 개인전이다. 30여 년간 '구(sphere)'를 중심 모티브로 조각작업을 지속해온 신동문은 구체가 반사하는 빛과 이미지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와 그 안의 관계를 형상화해왔다. 그의 조각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구체들이 서로 이어지고 증식한다. 작품



의 표면은 거울처럼 주변 환경을 반사하며, 관객은 그 안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고, 조각과 공간, 자신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한편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신동문은 금호미술관, 서울대학교병원, 롯데호텔서울, 갤러리 현대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등 다수 기관에 소장돼 있으며, 병원과 호텔 등 도시 공공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거닐다 김호득(69회화)

김호득 동문의 개인전 '거닐다'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아트사이드 템퍼러리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전시장의 창 너머로 보이는 북악산과 인왕산의 산맥과 어우러지는 폭포를 선보였는데, 자연의 에너지는 지필묵을 통해 화폭 안으로 치환되어 바깥의 풍경과 하나의 맥을 형성했다. 그의 정신세계가 응집된 윤필과 생동감은 폭포의 실경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그만의 방식으로 작게 미분되어 깊은 에너지를 전달했다. 그가 이번에 선보인 신작에서는 이전



과는 다른 일기(逸氣)가 감지되는데 이는 최근까지 겪어 왔던 김동문의 오랜 투병 생활에 기인할 것이다. 그는 자유롭게 낙하하는 물줄기를 그렸다. 특히 물감을 흡수하기보다 뿜어 내는 광목천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신체가 만들어내는 감각적인 부분을, 자연으로부터 얻은 그 기운을 그대로 쏟아냈다. 한편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9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초대전을 가졌다.

자기 자리에 서다 신현경(74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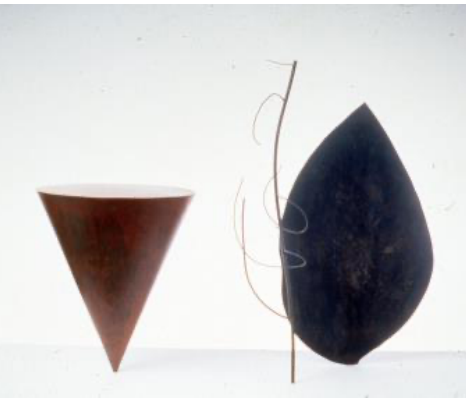
신현경 동문의 개인전 '자기 자리에 서다'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아트레온갤러리에서 열렸다. 바느질과 실뜨기, 매듭과 압인, 섬세한 색연필 채색으로 기하학적 패턴과 유기적 형태들을 변주해온 신동문의 작품은 형식주의의 외형을 닮았으나 독단적이거나 내용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형식으로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을 전달해 왔다. 그의 작업은 일상과 함께 하는 예술로 자기결정적 미학적 기준을 고수하는 미술 오브제의 한정된 범위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으로 말하는 의미를 상기시킴으로써 내용이



형식을 압도하는 동시대 미술의 문맥에서도 멀찌감치 벗어나 있다. 개인의 체험에서 기인하는 형식, 작가의 삶과 긴밀하게 호흡하는 미적형식, 그것으로 관람자의 반응에 열려 있는 미술형식을 지키고 있는 그의 작업은 형식과 내용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둘 사이의 간극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매운 '의미 있는 형식'이 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교 졸업후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 미술석사와 미술교육석사 학위를 취득한 신동문은 영산대 교수 및 디자인연구소장을 지냈다.

앞사귀가 있는 풍경 김승희(65응마)

김승희 동문의 개인전 '앞사귀가 있는 풍경'이 지난 5월 31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바우지움조각미술관에서 열린다. 주로 은주전자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김동문은 80년대 중반 책 『이조의 민화』를 접하고 작자미상의 궁중화나 민화가 자신에게 가장 한국적인 시각예술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풍경>시리즈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동문은 조선조 민화에서 주로 앞사귀, 열매, 나뭇가지와 화병 등 자연물과 실내 용기들을 차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평면에 그려진 정물을 오브제로 끌어와 공간을 구



성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 그 후 다수의 개인전과 2002년 월드컵 문화상품을 위한 수저, 양식기, 티스푼, 포크 디자인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맡아 활발히 활동했다. 현재는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금속공예학과 명예교수이며 '갤러리 카페 소연'과 '소연 컬렉션'의 대표이다.



김 승 희

앞사귀가 있는 풍경

2025.5.31 Sat
2025.7.31 Thu

10:00~18:00 (17:00 입장 마감)
매주 월요일 휴관

BAUZIUM
바우지움
조각미술관

바우지움조각미술관
Bauzium Sculpture Museum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온천3길 37

033)632 6632 bauzium.co.kr

후원광고

앞사귀가 있는 풍경 재료 적동, 확동, 금속착색 기법 응용 _ 120x120x60cm_2025작



품에 도전한 주미경 동기의 회화 작품(2025)까지 한 전시 안에 50년을 담아서 각자의 화양연화(花樣年華)를 풀어 보여 주었다. 졸업 후 처음 만난 동기들, 긴 세월 탓에 얼굴을 기억 못한 동기들, 전시를 위해 멀리 미국과 캐나다에서 귀국한 동기들과 반갑게 조우하며 유금란 동기가 심혈을 기울려 제작한 추억의 '75 졸업앨범', '우리의 학창시절'과 해외에 있는 동기들이 전시장에 오지 못하는 아쉬움을 담아 보내 준 '영상편지' 영상을 함께 보며 지난 추억을 나누었다. 또한 긴 세월 속에 먼저 떠난 동기들을 추모하며 가까운 동기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였다. 유향숙 집행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오프닝에서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동기들 각자가 돌아가며 자신의 지나온 날을 요약 함축하여 들려준 이야기들이었다.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온 경험을 공유하며 서울대 울타리 안에서 젊은 날을 보낼 수 있었음에, 이후 작품활동을 해오며 늘 첫 문장으로 동기들의 경력을 빛내 주었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문구를 돌아보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 동기들 모두에게 내어 준 넉넉한 품에 감사하였다. 이번 입학 50주년 기념전은 2014년 10월 양평 Gallery SOBAB 대안공간 전시를 시작으로 2025년 백악미술관 전시까지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55주년, 60주년 기념전시, 나아가 그 이후까지 이어가는 아름다운 75 동기 공동체를 꿈꾸는 시간이었다.

75학번 입학50주년 기념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75학번 입학 50주년 기념전시회’가 지난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열렸다. 75학번은 공릉동캠퍼스에서 새내기 대학생활을 시작하였고 2학년부터 지금의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여 수학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총 33명의 동기들이 참여하였는데 유영란 동기의 대학 1학년 기초과제 작품(1975년)부터 디자인전공 이후 새롭게 회화작

神들의 땅 이종목(76회화)

이종목 동문의 개인전 '神들의 땅'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아트레온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20여년 전부터 '神들의 땅'이란 제목의 그림들을 그려왔고 지금도 중요한 주제로 삼아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의 회화는 질서가 생기기 전의 상태에서 서서히 전개되는데, 이 상태에는 아직 의미가 정해지지 않은 상징과 언어, 법칙 그리고 자유로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기호들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 어딘가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를 찾아나가는 여정이다. 그의 작업에는 아직 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들이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가능성과 역할을 찾아간다. 한편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이동문은 이화여대 미술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퇴임 후 곤지암에 작업실을 짓고 작업에 전념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Portrait of Seeing: 비워진 모습 이용덕(77조소)

이용덕 동문의 개인전 'Portrait of Seeing: 비워진 모습'이 지난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아트조선 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역상조각으로 40여년간 작품 활동을 이어온 이동문의 작품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트 림(Kate Lim) 아트플랫폼아시아 대표와 아트조선이 공동 기획했으며, 오랜 시간 조각의 본질과 감각을 탐구해 온 작가의 최근 작업을 조망하는 자리로, 존재의 자리가 비워진 채 잔상만을 남긴 시각적 경험을 통해 실재와 환영,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경계를 섬세하게 풀어냈다. 5월 20일 오후 3시에는 전시 연



계 프로그램이 열렸다. 퍼포먼스 연출을 맡은 임야비는 "이용덕 작가의 작품은 오목한 역상조각의 형태다. 그러나 관객의 시선에 따라 불룩한 형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의 귓속 고막도, 눈의 망막도 오목한 형태다. 그러나 우리는 시각에 따라, 청각에 따라 작품과 멜로디를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우리가 보아온 빛의 음각이 망막이고, 우리가 들어온 소리의 음각이 고막이다."라며 이번 퍼포먼스의 연출 의도를 밝혔다.

40년 동안의 푸른색 김춘수(77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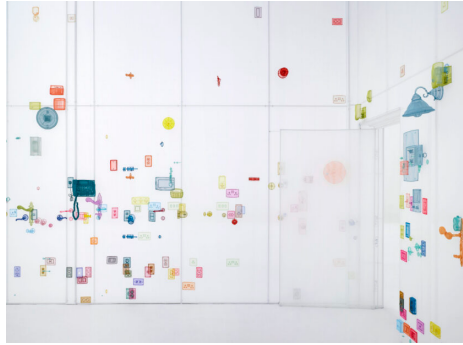
김춘수 동문의 개인전 '40년 동안의 푸른색'이 부산 시그니엘호텔에서 지난 5월 8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고대 종교화에서 신성의 상징으로 쓰인 울트라마린을 매개로, 우주의 심연과 생의 밀도, 내면의 고요를 담아낸 김동문의 대표작들을 선보인다. 그는 그동안 나이프나 붓 대신 손으로 안료를 찍어 캔버스에 새기는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해왔다. 멀리서 보면 단색 평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손끝의 압력과 안료의 밀도 차이가 만들어내는 고요하고 신성한 조형성이 드러난다. 이번 시그니엘 부산 전시는 김동



문이 한 색채로 쌓아온 40년의 초현실적 여정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이다. 시그니엘 부산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호텔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마음의 휴식과 영감을 선사하고자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휴식의 공간을 넘어 예술과 공존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1996년부터 2022년까지 모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했고 이후 창작에 전념하고 있다.

Walk the House 서도호(81회화)

서도호 동문의 개인전 'The Genesis Exhibition: Do Ho Suh: Walk the House'가 런던 테이트 모던에서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서동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전개해온 작업들을 집대성해 보여준다. 이번 개인전은 관객들이 직접 그의 설치물, 조각, 영상, 드로잉을 체험하며 '집',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든다. 대형 신작을 비롯해 그가 살아온 다양한 도시를 바탕으로 제작된 설치작품과 드로잉, 실험적 영상



작업 등을 전시하며 작품세계에 대한 깊이와 확장성을 드러낸다. 'Walk the House'는 한옥에서 착안한 표현이다. 서동문은 한옥의 해체와 재조립이 가능하며 다른 공간으로 집을 옮길 수 있는 '이동가능성'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건축과 신체, 기억과 공간의 관계를 사유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The Costume of Painter - On the Stage 배준성(86서양)

배준성 동문의 개인전 'The Costume of Painter - On the Stage'가 지난 5월 10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갤러리 508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회화의 확장성에 관한 여러 시리즈 작업을 거쳐 배동문이 새롭게 캔버스에 회귀하는 작업 'On the Stage'를 집중 소개하는 전시다. 작품은 평면의 캔버스 공간을 현실과 상상이 공존하는 무대라는 설정 하에 붓과 물감으로 연출한 작업이다. 시리즈로 제작된 이 작품은 그가 다양한 작업을 경험하면서 회화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자신만의 양식을 구축해 나가는 일관성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한



편 모교 서양화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배동문은 2000년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통과 현대, 서양과 동양,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그의 작품은 파리 퐁피두센터를 비롯하여 루이뷔통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과 애호가들이 소장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일획 One Stroke 임상빈(95서양)

지난 5월 1일부터 24일까지 갤러리카우에서 임상빈 동문의 개인전 '일획 One Stroke'가 열렸다. 전시는 임동문이 추구하는 '일획', 즉 일획의 본질성에 주목하며 석도의 일획론인 '일획이 만획이고 만획이 일획'이라는 철학과 통한다. 임동문은 "그림은 근본이다. 이와 같이 '잠재풍경'을 음미하다 보면, 내 그림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소위 우리를 '내 인생의 무림고수'로 탈바꿈하는 예술적인 '훈련장' 즉, 내 마음의 '도서관'이자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이



번 전시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진지하게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진정으로 모색하는 알찬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임동문은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판화와 석사, 콜럼비아 대학원 티처스 칼리지 미술과 미술교육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는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Beyond the Black 옷칠의 고요한 서사 신수진(99서양)

신수진 동문의 개인전 'Beyond the Black: 옷칠의 고요한 서사'가 지난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갤러리 도스에서 열렸다. 신동문은 옷을 소재로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면서 작품에 담긴 노동의 결실과 참된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다. 입체와 회화의 경계를 자유롭게 제시하고 장르의 제한 없는 예술을 구현하는. 그의 작품은 전통과 현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오가는 발전적 양상을 보이며, 신동문 스스로 인고의 시간을 겪어 얻어낸 노력의 산물이다. 작업은 그에게



단계적으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하며, 층층이 덮이고 쌓이는 레이어는 삶의 철학과 진정성을 일깨운다. 그의 작업은 재료의 물성을 감각적으로 다루고 그만의 방식으로 조직하는 과정은 과거를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시점으로 작품을 새롭게 마주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신동문은 내포하고자 하는 본직적인 취지를 예술로 승화함으로써 관객에게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고찰하게 했다.

어부사시사 정종미(76회화)

정종미 동문의 개인전 '어부사시사'가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금호미술관과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정종미갤러리에서 열린다. 정동문의 작품은 색면 추상을 기반으로 산수와 인물의 두 개의 영역을 넘나든다. 이번 전시는 추상산수 작품의 하나인 '어부사시사'를 주제로 기획됐다. 어부사시사는 윤선도의 시조로 국문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당시 중국에 대한 사대가 지나쳐 한문이 아닌 한글 시조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이를 슬프게 여겼던 윤선도가 한글로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정동문의 '어부사시사



'는 윤선도가 우리의 글로 시를 지었듯이 우리의 재료로 자연의 색을 그리고자 하여 제작됐다. 한편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정동문은 고려대학교에 재직 할 당시 색채연구소장을 역임하며 다수의 국가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는 정종미갤러리 대표이자 한국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가을부터는 해당 갤러리에서 한국미술발전을 위한 재료학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서로는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 『우리그림의 색과칠』이 있다.

후원광고

정종미
JUNG JONGMEE

어부사시사

2025.6.26-7.6
금호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8
kumhomuseum.com

작가와와의 대담 :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 1
7.3(목) PM 2-4 금호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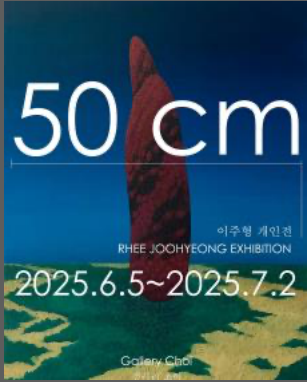
2025.7.10-7.31
정종미갤러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68-19
jjongmeegallery.creatorlink.net

작가와와의 대담 :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 2
7.24(목) PM 2-4 정종미갤러리

6월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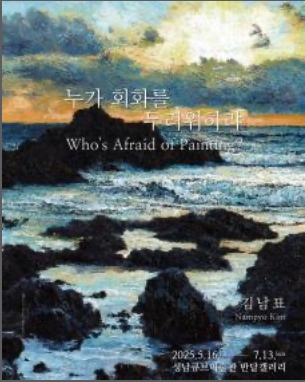
어부사시사
정종미(76회화)
6.26-7.6
금호미술관



50cm
이주형(95서양)
6.5-7.2
갤러리 초이



앞사귀가 있는 풍경
김승희(65응미)
5.31-7.30
바우지움조각미술관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랴
김남표(석91서양)
5.16-7.13
성남큐브미술관



유리에 난 금
김예찬(14동양)·최형준(16동양)
5.14-6.30
관정갤러리



2025 AG신진작가대상 선정작가전
장현호(석22동양) 외 5인
5.12-6.30
AG갤러리



The Costume of Painter-On the Stage
배준성(86서양)
5.10-7.30
갤러리 508



40년 동안의 푸른색
김춘수(77회화)
5.8-7.31
시그니엘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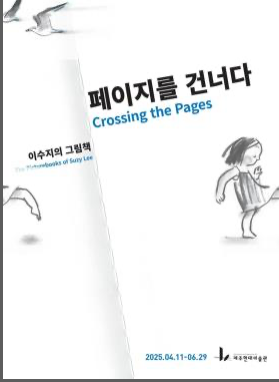
Walk the House
서도호(81회화)
5.1-10.26
테이트모던



불가피한 상황과 파치 못할 사정들
정연두(88조소)
4.25-7.20
부산 국제갤러리



내 속에 꿈틀거리는 한 가닥 진심
하인두(50회화) 외 1인
4.22-8.24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페이지를 건너다
이수지(84서양)
4.11-6.29
제주현대미술관



김종학 개인전
김종학(56회화)
4.10-10.26
갤러리 JOEUN



말끔하다. 월전 장우성의 산수화
장우성(교원46-61)
4.10-7.13
이천시립월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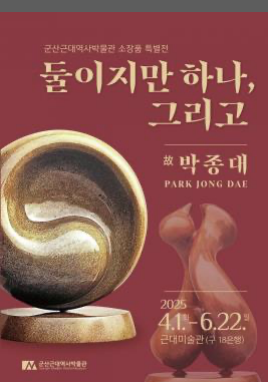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25
유장우(04서양) 외 7인
4.10-7.6
성곡미술관 2관



시대의 조각들
최만린(54조소) 외 4인
4.10-6.28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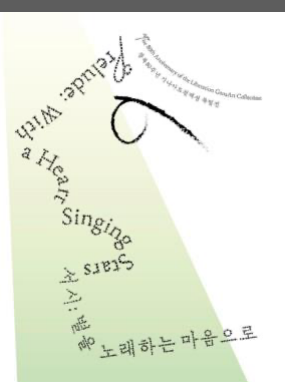
누에 비단길 빨주노초파남보
김형관(91서양)
4.1-9.30
북합문화지구 누에



둘이지만 하나, 그리고
故박종대(62조소)
4.1-6.22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미술관



보이지 않는 색들
김인중(59회화)
3.29-8.31
프랑스 상보르성



서사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전소정(01조소) 외
3.20-10.26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